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3.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EU, 아프간 인접지역 활동 '테러단체 및 지도자' 제재
 - 2.21 EU는 아프간 인접지역에서 활동중인 △인도 알카에다(AQIS)와 지도자 「오사마 마흐무드」(Osama Mahmood) △ISIS 호라산지부(ISIS-K)와 대변인 「아지즈 아잠」(Aziz Azam)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
 - * EU는 '16.9월부터 테러단체와 관련 개인·사업체 등에 대해 제재

미주

- 콜롬비아, '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' 23명 사살
 - 2.26 「디에고 몰라노」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북동부 아라우카주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'콜롬비아무장혁명군(FARC)*' 잔당 23명을 사살하고, 5명을 생포하는 등 "FARC 잔당 조직을 해체했다"고 발표
 - *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군이었으나, '16년 평화협정으로 해체
- UN 안보리, 후티叛軍 테러단체 규정 결의안 채택
 - 2.28 UN 안보리는 UAE 등에 대한 드론·미사일 공격과 예멘內 민간인·민간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후티叛軍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무기금수조치(embargo)*를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
 - * 특정 국가와의 직·간접 교역과 투자 등 모든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

아·태평양

- 탈레반, 노획한 美軍 무기현황 및 정규군 창설 상황 공개
 - 2.23 탈레반 개혁위원회는 美軍 철수 당시 남겨진 헬기·항공기의 절반을 수리하고 소형무기 30만정 등 충분한 무기를 확보했으며, 前정부군 소속 인원 합류 등 대군 창설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
 - * 한편, 전문가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아프간 자산 동결로 탈레반 정부가 사실상 파산상태로서 대규모 군대 운영비용 감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○ **해양경찰청, '신종 해상 밀입국' 차단 대책 발표**

- 2.22 해경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밀입국 시도*에 대응하기 위해 △군과 협력을 통한 항공기 및 함정레이더 탐지 △밀입국 취약해역·해안가(560개소) 집중순찰 등 해상밀입국 종합대책을 발표

* 해경은 한국 여권이 만료된 중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서해안을 통한 밀입국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

○ **경찰청, 대선 대비 '민유총기·화약류 안전관리' 강화**

- 경찰청은 대선 기간중 요인테러 및 사회교란행위 차단 일환으로 총기·화약류 제조·판매·사용처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3.4~10 유해 야생동물 구제용 민유총기 출고(사용) 금지 예정

*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구제용 소지허가 총기는 평상시 경찰관서에 보관하며, 허가자 사용요청시 음주여부·심리상태 확인 및 안전교육후 출고(낮에만 사용가능)

중 등

○ **레바논, ISIS 연계 무장세력 '자살폭탄 테러' 사전 차단**

- 2.23 레바논 보안당국은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폭탄조끼와 총기로 무장한 ISIS 연계 무장세력 용의자 2명을 검거, 이들이 감행하려던 테러공격(3건)을 사전 발생 이전에 차단했다고 발표

* 同 지역은 ISIS 등 수니파와 대립해 온 시아파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이며, 보안군은 지난 17일 테러 첩보를 사전 입수했다고 발표

○ **이스라엘軍, 하마스 테러자금 지원용 암호화폐 압수**

- 2.28 「베니 긴츠」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지원에 사용되는 알마차둔 환전소 및 관련 사업체 소유의 암호화폐 디지털 계정 12개와 디지털 지갑 30개를 압수했다고 발표

* 압수된 암호화폐 중 일부는 샴라크 가문의 소유로, 同 가문은 하마스에 연간 수천만불을 송금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음

부르키나파소 首都 발생 총격·자살 폭탄 동시다발 테러

- '18.3.2, 10시경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 무장괴한들의 △프랑스 대사관 무차별 총격 △육군본부 대상 차량 자살폭탄 테러 등 동시다발 공격으로 16명 사망(테러범 8·군인 8), 85명 부상
 - * 同 테러로 佛 대사관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등 물적 피해도 발생
- 당시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트럭을 타고 이동하면서 총격을 가하고 아랍어로 “알라후 아크바르(神은 위대하다)”라고 외쳤다고 증언
- 사건 직후, 부르키나파소 「클레멘트 사와도고」 보안장관은 현지방송에 출연해 테러 배후는 밝히지 않은 채 “와가두구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프리카 G5 회담을 겨냥한 테러 공격으로 추정된다”고 언급
- 한편, ‘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(JNIM)’은 사건 발생 3일 후 선전 매체 ‘알 아크바르’를 통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, “자신들의 대원을 살해한 말리 주둔 프랑스軍에 대한 보복”임을 강조
 - * 프랑스軍은 테러 발생 약 2주 전인 '18.2.15 공습과 지상작전을 통해 말리內 JNIM의 근거지를 공격하여 해당 조직원 20여명을 사살하거나 생포

<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(JNIM)* >

* Jama'at Nusrat Al Islam wal-Muslimin

- 목표 : 北아프리카·사헬지역에 이슬람 국가 건설(이슬람 극단주의)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8.10), 미국('18.9)
- 결성시기 : '17.3월
- 조직규모 : 1,000~2,000명('19.10월 기준)
- 지도자 : 이야드 아그 갈리(Iyad Ag Ghaly)
- 활동지역 : 말리, 알제리, 튀니지 등 北아프리카 사하라·사헬지역
- 활동방법 : 대정부 게릴라전, 자폭테러, 인질 납치 등
- 주요테러 : '18년 G5 사헬기지 폭발물 테러, '19.9월 부르키나파소 군사기지 공격 '20년 말리 야당 정치인 납치, '21.4월 프랑스 언론인 납치 등